"한국 기독교박물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논평

신광철 (한신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

Ⅰ.

이덕주 교수님의 논문은 한국의 기독교(개신교)박물관의 현황에 대한 꼼꼼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기독교박물관의 당면과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독교박물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1장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기독교(개신교) 박물관의 현황은 이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덕주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2장에서 크게 3가지의 당면 과제를 검토하는 한편, 3장에서는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검토 및 전망은 매우 실제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것들입니다. 특히, 기독교박물관의 위상과 전망을 종교다원화 현실 속에서의 박물관의 역할과 관련짓는 시도는 상당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덕주 교수님의 연구 성과는 이 분야의 이론적 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방향 설정에도 주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논평자는 이덕주 교수님의 이러한 연구논문의 목적과 성과에 전적인 공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독교박물관의 의의에 대해 보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논문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고 여겨지는 기독교박물관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는 선에서 논평자의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Ⅱ.

기독교박물관은 기독교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근대 한국사의 소중한 자료의 수장처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게 제기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다수의 기독교박물관들이 지극히 영세한 범위 내에서 수집·전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독교사가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제할 때, 기독교박물관의 위상은 더욱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덕주 목사님의 논문에서는 기독교(개신교)박물관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논평자는 한신대학교에서 <종교문화재와 박물관학>(2004년도 2학기)을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토대로,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논평자가 이 논문을 통해 기독교(개신교)박물관의 유형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논편자는 한국 기독교박물관의 유형을 박물관이 주요하게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독교역사박물관, 기독교예술박물관, 성서(고고학)박물관, 개교회 및 지역교회 역사박물관(사료관), 기독교인물박물관(기념관) 등으로 유형화하는 하는 한편, 여기에 기독교학교(대학)박물관을 덧붙여 그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기독교역사박물관은 기독교사 관련 문화재 및 자료를 수집·전시하는 박물관을 말합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용인 순교자기념관, 기독교선교기념관(양화진 선교사 묘지), 동산의료원박물관, 애양원역사박물관, 지적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기독교예술박물관으로는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미술관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예술이 종교문화 이해의 중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기독교음악박물관(예, 찬송가박물관), 기독교영화박물관, 기독교복식박물관 등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서(고고학)박물관은 기독교역사박물관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의 기독교박물관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평강성서유물박물관, 국제성서박물관,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박물관, 대한성서공회 성서전시실, 한국성경유물관,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한국성서고고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스스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역사관 내지는 사료관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00주년을 넘긴 역사 깊은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모교회들이 조성하고 있는 자료실은 나름대로 박물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새문안교회 역사관과 전주서문교회 역사자료실입니다. 이 밖에도, 백령기독교역사관(중화교회 기념관), 남전교회 1백주년 기념관 내 역사자료실 등도 중요한 사료관입니다.

기독교인물박물관(기념관)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전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유형의 박물관입니다. 기독교인물박물관은 대체로 기념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언더우드가 기념관, 유관순열사 기념관, 이기풍선교기념관, 이기풍순교기념관, 남궁억기념관, 손양원목사순교기념관, 한경직목사사이버기념관,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아펜젤러·노블기념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립기념관의 근대민족운동과 기독교가 관련된 주제의 전시물

이나 자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나, 도산 안창호, 조만식, 주기철 등 기독교 역사 인물의 컬렉션이나 기념관 등도 범 기독교박물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학교박물관은 대학박물관과 중등학교박물관으로 대별됩니다. 대학박물관 가운데 대표적인 기독교박물관으로는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주대학교 박물관의 기독교자료전시실, 한남대학교 박물관의 기독교 선교자료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동은의학박물관'이 있으며, 침례교역사자료실(침례교신학대학 내)도 기념관 형태이지만 박물관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립된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도 일부 박물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기독교대학 가운데 기독교박물관 건립을 천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천안대, 총신대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중등학교박물관으로는 숭의역사관,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유형 가운데 한국 기독교박물관을 대표하는 유형으로는 기독교역사박물관과 성서(고고학)박물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사료(자료)의 수장처라는 점에서 기독교역사박물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서(고고학)박물관 또한 역사고고자료가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측면이 강하겠지만, 한국교회의 성서중심주의 전통 또한 중요한 배경을 이루었을 것입니다.